

보도시점

엠바고
국무회의 결과 이후

배포

2026. 9. 1.(화)

조달청,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AI 전환에 27년 예산 집중 투입**- '27년도 조달청 정부 예산안 3,723억원 편성...올해 대비 750억원 증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50억원 증가한 3,723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조달청은 특별회계기관으로서 손익계정, 자본계정 분리에 따른 계정 간 거래, 회계 간 거래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달청이 집행하는 예산

조달청은 내년도 '혁신조달 강화'와 '공공조달 인공지능(AI) 전환'에 역점을 두고 관련 핵심사업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첫째, 혁신조달 강화를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혁신조달은 정부가 기술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축진을 견인하고 기업에 초기판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은 올해 대비 306억원 증액된 1,13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에는 'AX-SPRINT' 등 범정부 차원의 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기술제품을 실증과 연계하는 예산 13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술 실증 성과를 본격 확산한다.

이와 함께 기존 국내 실증사업은 예산 900억원을 반영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예산은 102억원을 배정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이 신기술 첨단제품을 과감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조달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여 공공조달의 AI·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요예측부터 품목발굴, 구매·방출, 재고 관리까지 비축 전 과정을 관리하는 AI 기반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에 77억원, AI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물자 가격정보를 실시간 수집·비교, 모니터링 하는 가격비교조사시스템 구축에 42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레미콘·아스콘 등 4대 관급자재의 수요 예측과 품질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계약관리통합시스템 구축에 39억원, 공사유형별 분석·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공사비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에 29억원을 편성하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2027년 예산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AI 전환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역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김성환	(042-724-7067)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성룡	(042-724-7047)

